

## 『피네간의 경야』: 형제의 다툼\*

김 종 건 역

“플 마이스트르 쉬에머스.. 어떤 다른 다모자多毛者도, 다른 피수자 彼鬚者도 ... 의식하지 않았는지라.” (FW 177)

사물들에 대한 ‘경야’의 계획에서, 아버지는 한 사람 또는 더 많은 자식의 인물들과 만남에서 압도당하는지라, 그리하여 이어 (어네스트 존즈의 『줄리어스 시저』의 독해에서 개관되다시피) “형제들은” 추락한 아버지에 의한 빈 자리를 위해 다툰다. 형제들 간의 이 다툼은(결국 브루노식의 ‘반대의 결합’으로 결과하면서) 비록 많은 변장 아래 일지라도, 『경야』에서 반복적으로 재현한다. 즉, 몇몇만을 들먹이거니와, 브루터스와 캐시어스, 맥베드와 맥다프, 여우와 포도, 쉘프와 그루그, 캐브와 돌프, 케빈과 젤리, 개미와 베짖이, 그리고 나무와 돌맹이. 이러한 경쟁으로 가장 밀집되게 관련된 부분은 작품의 제1부의 6장 및 7장들로서(특히 후반에), 이는 손(존즈 교수)과 웹 간의 대결의 요점들이다. 쌍둥이들의 투쟁은, 셰익스피어적 언급들을 통해서, 그의 작품을 향한, 특히 『경야』를 향한, 조이스 자신의 느낌들에 관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드러낸다.

---

\* 이 글은 Vincent John Cheng의 *Shakespeare and Joyce: A Study of Finnegans Wake*로부터 발췌한 논문 “*Finnegans Wake: The Strife Between Brothers*”의 번안이다. 『경야』의 많은 주제들 중 “형제의 다툼”은 반복적으로 재현하거니와, Cheng의 그에 대한 ‘고무적’ 내용은 우리에게 펍 유익하다.

“열두 개의 질문들” 가운데 11번째에서, 존즈 교수로서 손은 그가 만일 자신의 궁핍하고, 술 취한, 굶주리는, 망명의 형(“법석대는 술잔치에서 우환憂患의 한 불쌍한 안질환자眼疾患者,”[148.33]: 애란출신의 눈병 앓는 망명자)에게 약간의 돈을 빌려줌으로써, 그를 기꺼이 도울 것인지를 질문 받는다: “존즈여, 우리는 오늘 저녁 상관하리라 생각하지 않는데, 그대는 어쩔 참이고?”(149.10). 손-존즈는, 반대자들 간의 다툼-공간 대 시간, 눈 대 귀, 돌맹이 대 나무, 여우 대 포도, 부르터스 대 캐시어스-에 관한 한 공간자-와권자-프로이트-세익스피어적 연설을 학생 “슈트”(149.19, 24)에게 시작하는지라, 세익스피어에 대한, 그리고 세익스피어의 연극들의 어네스트-존즈의 프로이트-오이디푸스적 독서 (128.36에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대한, 암시로 흥분되어 있다. 최후로, 장의 아주 나중에, 그는 금전 대부를 위한 요구에로 되돌아가, 모세의 법칙에 호소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샤일록 및 ‘정의’와 동일시한다(다음 장에서 ‘정의’와 ‘자비’ 간의 대결을 예상하면서): “천만에! … 나의 불변의‘말’(言)은 신성하다도 … 자신의 혼저魂底에 모세 율법을 지니지 않으며, 말(言)의 법의 정복征服에 의하여 경외敬畏되지 않는 저 단남單男 … 만일 그가 나 자신의 유흥형제乳胸兄弟라도… 비록 그것이 그걸 기도하기 위해 나의 심장을 찢는다 한들, 하지만 나는 두려운지라 내가 말하기 증오할 지니!”(167.18-168.12). 손은 ‘말씀’에 대한 율법적, 모세의 가치에 호소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혼에 있어서 “모세 율법”을 지니지 않는 자가-손 자신의 형이라 할 지라도-거절당하리라, 말하고 있다. 그의 말은 세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을 메아리 한다: “자기 자신 속에 음악이 없는 자/ 뿐만 아니라 달콤한 소리의 조화로써 감동되지 않는 자…”(V.i.83-84). 여기 비난자는, 그러나, 샤일록-손-‘정의’인지라 (반면에 저 연극에서 글줄은 샤일록을 비난하고, 그에 관해 언급한다), 그는 그의 영혼에서 “어떠한 모세”도 갖지 않은 웹-자비-포샤를 비난하면서, 정신을 초월한 모세의 율법서를 옹호한다. 실지로, 형제들 간의 다툼에서 자비의 특질을 나타낼 자는 웹-‘자비’일 것이다.

## “웹”

형제들 간의 가장 큰 대결은 『피네간의 경야』의 “웹” 부분인, 제I부의 7장,

169-195 페이지들에서 일어난다. 이 구절은 그의 아우, 손에 의하여 썸에게 퍼부어진 일련의 독설적 비난들을 함유한다. 조이스는 이전의(그리고 잇따른) 비평가들이 조이스 자신에 대하여 행한 큰 비난들의 모두를 손의 입속에 들어부었다. 이리하여, 형제들 간의 갈등은 여기 조이스와 그의 비동정적 비평가들, 썸-조이스와 세계의 손들 간의, 만남의 부대적 의미를 갖는다.

손은 자신의 장광설을 썸의 “저속함”에 대한 공격으로 시작한다: 그의 형은 나쁜 음식을 먹는 자요, 흉한 얼굴 모습을 지닌 불한당이다. 그는 불결하고, 몸을 씻지 않은 채, 그리고 냄새를 품기며, 마약 탐닉자요 취한이다. 그는 훌륭한 논의에 참가하려하지 않는 자이다. 그는 많은 다른 비속한 것들이다. 손의 공격들 가운데 약간은 다른 것들 보다 한층 삼투적인지라, 이들은 시인으로서 썸-조이스의 역할을 다루는 것들이다.

손은 예술가와 작가의 직업은 존경할 수 없거나, 속수무책의 것이라 말한다: “본 제임즈[썸]는 현재 실직 상태로, 연좌하여 글을 쓰려 함”(181.29-30). 여기 “제임즈”(Jymes)는 실직 상태요(일로부터), 규칙적 일을 위해서 (일의) 인내를 결한 채, 세계를 올바르게 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그저 앉아서 글을 쓰는 조이스-썸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 글줄은, 재차, 햄릿의 그것을 메아리로 울린다: “세월이 난장판이야! 오 저주할, 내가 그걸 바로잡을 운명을 지고 태어나다니”(I.v.188-89).

더군다나, 시인이 되기를 선택하는 동안, 썸은 “방랑시인적 기억력에서 저속했다”(172.28). 자신의 기억들이 개탄스러울 뿐만 아니라, 손에 따르면, 셰익스피어에 대한 그의 존경의 결여 및 ‘시인’에 대한 그의 기억 또한 “저속하다.” 호스티 또는 캐드처럼, 이 “가짜”는 어버이다운 “쉬익스파우어!”(Shikespower, 47.19)를 전복하기를 바란다: “그의 건족乾足의(부父페트릭의) 연옥은 네덜란드 검둥이가 견딜 수 있는 이상으로 … 저 저속에 대하여 어떠한이까, 평신도 및 신神수녀 여러분?”(177. 04-8). 그의 아버지의 연옥의 그들은 썸-햄릿-이 견딜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이었다. 어네스트 존즈의 햄릿처럼, 그는 이제 자기의 아버지를 타도해야만 한다. 손은 썸의 예술적 자만 때문에, 거장의 성스러운 글쓰기에 대한 그의 존경의 결여 때문에, 셰익스피어의 경쟁자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견해 때문에, 그를 공격한다: “썸은 언제나 모독적이라, 너무나 성서聖書롭게 기록된 채, 빌리 … 플 마이스토르 쉬에머스에 의해 … 그는 스스로 선밀先密하게 자신의 극지적極地的 반대자와 닮지 않거나 아니면 전확前確히 자기 자신과 꼭 같다고 상상 또는

추측했나니, 어떤 다른 다모자多毛者도, 다른 피수자彼鬚者도 으음(실례!) 의식하지 않았는지라 …”(177.23-34). 손은 여기 썸이 ‘시인’(셰익스피어)의 턱수염을 흔들거나, 그의 라이벌로서 어떤 다른 셰익스피어도 생각하지 않을 정도의 예술가적 자기 중심벽을 가지고 모독적으로 ‘문사 월 거장’ 역을 하려고 애쓰고 있음을 비난한다. “그가 어떤 다른 다모자多毛者도, 다른 피수자彼鬚者도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비난은, 로버트 그린의 『상당한 값어치의 기지』라는 책에서 비슷한 공격을 마음에 떠올리는지라(이는 이들 페이지들에서, “4테스타와 1그로트를 위해”(170.03)라는 구절 속에 언급되었으리라), 셰익스피어는 자기 자신의 자만으로 나라에서 단지 유일한 “섹스-신”(Shake-scene)이라 자기 자신을 생각했다는 것이다. “무슨 권리로 썸은 셰익스피어의 턱수염을 흔들 것인가? 무엇을 썸-조이스는 사실상 창조했기에, 그는 자기 자신을 이러한 ‘섹스-신’으로 믿을 것인가?” 그는 단지 “자기 자신에 관한 비예술가적 초상”(182.19)을, 즉 “내년이內年耳의 독견獨見으로”(182.20) “무용無用한 울리씨栗利氏의 독서불가한 청본靑本”(179.27), 그리고 “짓이긴 감자, 몽타주 몽치들”(183.22)로 넘치는, 한 세트의 “발효어醱酵語”(184.26)만을 생산했을 따름인지라.

손은 “썸이 가짜요, 저속한 가짜(170.25)였음을” 계속 말한다. 마치 로버트 그린의 셰익스피어를 “우리들의 깃털로 미화된,” 모방자임을 공격했듯이, 손은 썸을 가짜-허위자, 위조자, 및 표절자임을 비난한다. 썸은 햄릿처럼, 거드름 피우고, 필명아래 행세해야한다: “이 돈골豚骨의 견犬 시인은 자신이 부여한 베데켈러트라가 교수자絞首者의 이름 하에 스스로를 가장했도다”(177.21-22). 그린은 셰익스피어가 영국의 다른 극작가들을 복사한데 대하여, 그리고 그들의 작품들을 가필하고, 그이 자신의 이름 하에 그들을 무대에 올린 것을 비난했다. 그는, “우리들의 깃털로 미화된, 『유회자들의 껍데기에 싸인 호랑이의 심장』을 가진 … 건방진 ‘까마귀’임을 비난했고, 최선을 다해 무운시를 호언할 수 있는, 절대적 “이오네스의 잡부역”이 됨으로써, 자기 자신의 자만으로, 나라 안에서 유일한 “섹스-신”이라 상상함을 경고했다. 비슷하게, 손은 썸이 “무대 영국인들을 모사模寫하려고 애쓰는 것을” 비난하나니, 이리하여 “그는 집이 가라앉아라 하고 만장의 갈채를 받았다”(181.01). 이러한 공격은 이전에 조이스에게 돌려졌었다: “얼마나 교묘하게 어느 날 자기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엄청난 위조 수표를 공공연하게 입 밖에 내기 위하여 훔친 과일과 함께 모든 그들의 다양한 스타일의 서명을 복사하는 방

법을 연구하는 것 말고, 이 어정뱅이가 도대체 무엇을 했다고 그대는 생각하는 고”(181.14-17) – 그리고 이는 셰익스피어의 위조자들, 특히 윌리엄 헨리 아일랜드를 마음에 불리일으키거니와, 후자는 또한 그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셰익스피어의 서명을 지닌 다양한 문체들을 복사했다. “엄청난 위조 수표”는 엄청난(서사적) 『율리시스』 인지라, 그것을 위해 조이스는, “자신의 종족의 창조되지 않은 양심을 … 새로 창조하기 위해”(『초상』 253) 노력하면서,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해, 호머의 그리고 셰익스피어의 창조를 강탈했음을 비난받았다. 그린의 셰익스피어와 썸-조이스는 공히 “엉터리 것들”(artstouchup, 171.27)이요, 타인의 작품들의 가필된 작업들을 생산했다. 손은 그의 비급한 형을 “저 생래生來 허약 체질의 사기 한”(172.21)이라 부르거니와, 후자는 “가짜 오라인의(O’Ryan’s), 지워지지 않는 잉크(185.25)를 위조했다.” 마치 그린의, 얼마나 많은 “엉터리 것들,” 얼마나 많은 호랑이 심장을 감추는 미화된 깃털들이, 가짜와 표절자에 의해 대중에게 가해졌는지, 의아해 했듯이, 손 역시 썸에 관해 묻는다. “얼마나 많은 사이버 문체의 가짜 광증(shamiana)이, 얼마나 소수 또는 얼마나 다수의 가장 존경받는 대중적 사기가, 얼마나 극다수極多數의 신앙심으로 위조된 거둬 쓴 양피지의 사본이, 그의 표절자의 펜에서부터 이 병적 과정에 의해 우선적으로 몰래 흘러 나왔는지를 누가 말할 수 있으랴?”(181.36-182.03).

썸-조이스의 작품은 가짜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문학의 한 이기주의적, 표현주의의, “자기 자신의 비예술적 초상”(182.19), “자기 자신의 신비”(184.09)를 입증하는, 한 “젓은 침대의 고백”(188.01)이다. 그것은 그것의 자만이나 자부심에 있어서 불가지론적 및 마왕적인지라: “그러면 그대는 구유 속의 어떤 신을 위하여 그대 자신 신봉 하시고, 여女썸, 그대가 섬기지도 섬기게 하지도, 기도하지도 기도하게 하지도 않을, 아하 맏소사?”(188.18-19). 결국, 썸-조이스의 문학은, 모든 그의 외교집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독창적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한 세트의 표절적 가짜요, 그는 녀마주이, “사육死肉의 흡입자, 조숙한 묘굴인墓掘人”(189.28)으로서, 죽은 저자들의 저작물을, 또는 “어느 요크(Yorek)의 어느 주교”(boskop, 190.19)를 먹어치운다. 묘굴은, “조숙한 묘굴인”인, 썸으로서, 이 장에 나타나는, 『햄릿』의 묘굴자를 회상시키는 바, 후자는 요리크(Yorick)의 어느 두개골에 대한 그의 기억에 의해 양육되어진다. “어느 요크의 주교”는 『트리스트람 샌디』에서 요리의 전도사(주교?)에 대해, 그리고 요리의 오래된 두개골을 파헤치는, 『햄릿』의

묘굴인인, “비극의 어릿광대”(171.15: 그것은 또한 썸을 언급하는지라)에 대해, 언급한다. 『웹스터』 사전에 따르면 “주교 남”(Boskon man)(북경이나 혹은 필트타운 맨처럼, 트란스발의 지역 명을 딴 채)은 (아마도) “현대의 삼림인森林人 및 미개인의 조상인, 홍적세洪績世(Hoottentots)(신세대)의 고故 남부 아프리카인”이었다. 독일어로 *Bos* 'e는 “악마” 혹은 “아귀”를 의미하고, *Koft*는 “머리”를 의미한다. “Boskop”는, 그럼, 선사시대의 두개골 혹은 조상을 대표할 수 있다. “Yorek의 boskop”은 고대(yore)의 요릭 및 조상들(혹은 악마들)의 두개골을 의미할 법하다. 이리하여, 썸-햄릿은 죽은 저자들을 묘굴하는 것에 대해 그리고 그들의 소재들을 사육제화謝肉祭化 하는(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 비난을 받는다.

최후로, 손은 썸을 타인들의 작품들로 스스로를 양육하는 것뿐만 아니라—“비예술적 초상들” 및 “자기 자신에 대한 신비”의 “젖은 침대의 고백”을 씬에 있어서—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육체, 생명 및 작품들을 양식養殖하는 것에 대해 비난한다: “그대의 많은 화상火傷과 일소日燒와 물집, 농가진膿痂疹의 쓰림과 농포膿疱에 대한 맹목적 숙고에 의하여 … 그러나 그것은 그대의 이두泥頭의 둔감에 결코 자극을 주지는 못할 터인즉 … 그대가 당근을 더 많이 썰면 썰수록, 그대는 무를 더 베개하고, 그대가 감자 껍질을 더 많이 벗기면 벗길수록, 그대는 양파 때문에 더 많은 눈물을 흘리고, 그대가 소고기를 더 많이 저미면 저밀수록, 그대는 더 많은 양고기를 쪄이고, 그대가 시금치를 더 많이 다듬으면 다듬을수록, 불은 한층 사납게 타고, 그대의 숟가락은 한층 길어지는지라, 팔꿈치에 더 많은 기름을 주면 줄수록 죽은 한층 딱딱해지나니 그대의 아일랜드의 새로운 스투가 더 근사한 냄새를 풍기도다”(189.31-190.08).

이것은 조이스 권에서는 오히려 솔직하고, 산란한 자기심문(self-questioning)이다. 이 장 자체는 고백자-심문자 역을 하는 손과 함께, 그러한 부류의 가톨릭적 고백-심문이다: “옛불지라[기도할지라.] 우리는 성찰했나니, 의지하고 행동하고 [“나는” 표준 가톨릭적 고백에 따를 때 “생각, 말 및 행위에 있어서 죄를 지었도다”]. [마치 양심의 가톨릭적 심문의 질문들처럼] “왜, 누가, 어디서, 언제, 어떻게, 몇 번, 누구의 도움으로?”(188.08-9). 손은, 썸의 양심을 삼투적 공격으로 엿보면서, 진행하는지라, 조이스는 그들 약간의 공격들을 자기스스로 예리하게 의식했음에 틀림없다: “무정부주의, 유아주위唯我主義, 이단주의자, 그대는 그대 자신의 가장 강도强度롭게도 의심스런 영혼의 진공眞空 위에 그대의 비非연합 왕국을

수립했도다. 그러면 그대는 구유 속의 어떤 신을 위하여 그대 자신 신봉하고, 여女唄, 그대가 섬기지도 섬기게 하지도, 기도하지도 기도하게 하지도 않을 것인가?”(188.16-19). 썬의 양심에 대한 이 심문은(240.07에서 “양심의 심남審男”) 『리처드 3세』의 메아리 속의 말인: “자비(그 자신에 관한):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소서! 나의 실수, 그의 실수, 실수를 통한 왕연王緣!”(193.31-32)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썬(자비)으로 하여금 고백을 박차拍車하도록 충분히 마비시키고 있다.

손이 썬을 거둬 위협하는 가장 크고 결정적인 공격은 조이스가 아마도 가장 밀접하게 그리고 예리하게 느꼈든 것일 것이다: “썬이여, 그대는. 쉬! 그대는 미쳤어!”(193.28) 폴로니우스는, “그대의 마음의 광기狂氣 속에 조리條理”(32.05)를 의심하면서, 햄릿에게 꼭 같은 공격을 행했다. 『경야』 제1부 6장에서, 손은 썬에게 “순수한 예술적 무질서”(126.09)를 가진 것을 비난했었다. “광기 속의 조리”와 “순수한 예술적 무질서”는 둘 다, 아마도—적어도 손-동정자들에 의하여—『경야』의 적절한 서술들일 것이다. 6장에서 손은 썬의 예민함을 그의 자신이 참견하는, 폴로니우스 같은 조리성에 비유했다. “나는 저 사나이가 지독히도 무책호기적無責好奇的이지만 아주 지겹도록 예민하기 때문에 나 자신의 설교대說教臺처럼 사랑할 수 있는지라 그리하여 나는 성 메토디우스적 조리성條理性과 노결奴結해야만 하도다. 나는 그가 트리스탄 다 쿤타 땅, 전술도의 야군여단夜軍旅團을 지휘하는 은둔자처럼 살기를 바라노니”(159.30-32). 썬은 “아주 예민한지라”(baileycliaver) (아주 예민한, 그리고 도시풍의: 애란어의 baile 또는 Balaclava), 한편 손은 그의 조리성에 약착같다. 그러나 손-폴로니우스가 거둬서 썬-햄릿의 조리(method)를 미쳤다(mad)고 부르는 것은 현재의 장(1부 7장)에서이다. 그는 『피네간의 경야』의 용어와 “그의 의미론”(173.32: 그리고 썬-어릿광대)이, “광기狂氣에 접변接邊하는 세심성細心性”(173.34)으로 아주 충만한 채, 어느 제정신을 지닌 사람에게 의하여 아마 이해될 수 있는지 어떤지를 질문한다: “그러나 어느 누구, 정신병원을 별개로 하고, 그걸 믿겠는고?”(177.13). 손은 썬의 “상상적 민요”(177.27)를, 다른 것들 가운데서, “사나이가 미칠 때의 외도법外道法”(177.29)이라 이름 붙인다. “그대의 광기 속의 조리”(metheg in your midness, 32.05)에 대한 비난은 “광성狂性 속의 비어리츠”(the beerlitz in his mathness, 182.07: method=metheg=mead=beer; 및 Berlitz Method), 다언어적 Berlitz Method의 광기로서, 여기 반복된다. 『율리시스』를 쓰는 썬-조이스는 손에 의해 “이 반미치광이의 몸서리치는 광경”(179.24)으로



187페이지에서 시작하고 있을 때, 우리가 “자비 또는 정의”(187.21)를 다루고 있음을 상기한다. ‘정의’는 그러자 나아가 자신의 심한 비난을 사실대로 말한다: “그대 [‘자비’-웬]에게 “백금 1파운드를 주는 것을”(192.17) 거절한 다음에, ‘정의’는, 샤일록처럼, 이제 그의 “파운드의 살”을 요구한다: “그대는 세익수비아洗益收婢御의 생애의 웃음을 위하여 그런 별명으로 나를 바로 도와주려는고?”(191.01-2). ‘정의’는 ‘자비’에게 (191.01에서 내내 ‘자비’를 “한 무無장식술기의 프록코트 돌팔이 도사道師)와 같은 이름들로 부르면서), 그가 쓰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한 올바른 단어들 발견하는데 도움을, 그에게 단지 한 시인이 할 수 있듯, “세익수비아洗益收婢御의 생애의 웃음을 위하여”-세익스피어의 유머(그리고 생)를 위해, 그리고 예수의 사랑을 위해, 도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 예수는 특별히 타당한지라, 왜냐하면, 자비의 대변자로서, 그는 다른 뺨(이리하여 “쌍의 뺨”)을 돌릴 것을 옹호했기 때문이니-그것은 바로 ‘자비’가, ‘정의’의 모든 말의 모욕에도 불구하고, 행하는 것이다.

잇따르는 페이지에서, 조이스-‘자비’는 재차 “그대 자신의 참혹가정慘酷假定의 십자가에 묵힌 명에 속에, 십자가에 처한”(—예수의 십자가형과 조이스의 소설, 192.17-18) 예수와 비유되는지라, 한편 손은, “마치 작은 유다의 강장주強壯酒 처럼”(193.09) 그의 형을 말로 채찍질하기를 그리고 십자가형을 처하는 것을 계속한다. ‘자비’는 마침내, 자신의 *culpa*(“나의 파오...”) 그리고 자신이 “식인食人的 가인”(Cain, 193.32)이란 사실을 인지하면서, 대답한다. 그는 자신의 아우를 감수한다: “여청년汝青年의 나날이 내 것과 영혼성永混成하나니”(194.04). 이어 그는 “생장을 들자, 병어리는 말한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처형된 다음에, 자비-예수-포샤는 한 가지 ‘경야’와 한 가지 ‘부활’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병어리가 말하는 것”은—“꽹꽹꽹꽹꽹꽹꽹꽹꽹”으로—개울의 미친, 팔팔대고, 졸졸거리는 소리이다. 8장은(“아나 리비아 플루라벨”) 졸졸거리는 꿈지로서 재빨리 따르는지라, 왜냐하면, 이 장에서, 미친 웬의 자비는 아나 리비아 및 인성, 자비 및 회귀의 그녀의 수성水性의 흐름에 의하여 입증되기 때문이다.

## 위조에 대한 공격

우리는 형제들의 다툼에서, 손에 의하여 썸-조이스에 관해 이루어지는 거듭된 비난들 가운데 하나는 썸이야말로, 가짜요, 위조자, 및 날조자, 혹은 표절자임을 보아왔다. 사실상, 이 비난은 다툼의 한 가지 (또는 정해진) 중요 주제이다. 조이스와 셰익스피어는 의심스런 저작권의 비난을 받았나니, 이 사실은 조이스 자신의 작품들과 셰익스피어의 그것들 간의 유대감을 고조시켜왔음에 틀림없다. 조이스 자신은 문학의 과거와 그것의 위대한 문학 작품들을 단순히 캐니발(식인)하거나, 때때로 다른 작품들로부터 전체 구절들을 일소하거나, 자기 자신의 작품들 속에 그들을 포함한 것에 대하여 비난받거나, 스스로를 비난했다. 더욱이, 저자는 자기 자신의 독창성의 결여를 인정했다. 셰익스피어는 애초에 로버트 그린에 의해 표절자임을 비난 받았었다. 나중에, 그의 저작권은 다양한 “원고原告들”의 지지자들에 의해 질문을 받았는데, 그들은, 프란시스 베이컨, 또는 러틀란드 백작, 또는 사우스햄프턴 또는 타자들이—셰익스피어가 아니라—연극들을 썼다고 주장했다. “셰익스액液과 베이컨란卵처럼”(161.31), 조이스는 『경야』를 통틀어 베이컨으로 하여금 햄-햄릿-셰익스피어로 겹치도록 했다. 조이스는 자신이 표절자요, “묘굴인”이었음을 동의했으리라, 왜냐하면 그는 의식적으로 역사의 “드라마”를 기록하기 위하여, 과거의 퇴비더미로부터 그의 소재들을 모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의 작품을 셰익스피어의 그것에 늘 비교하곤 했기 때문에, ‘경야’의 역사가 이 세계의, 셰익스피어의 이중쇄二重刷에 의하여, 베이컨류, 사우스햄프턴류 및 루트랜류, 또는 심지어 위조자들에 의하여, 씌어졌음을 『경야』에서 또한 기꺼이 인정하려 했다. 스티븐 데덜러스처럼,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이란 셰익스피어의 연극들(및 역사)은 “러틀란드베이컨사우스햄턴셰익스피어 혹은 저 과오의 희극 속의 똑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시인”(U 9.866)에 의해 씌어졌던 것이다. 『경야』에는 프란시스 베이컨, 베이컨류의 사람들, 데리아 베이컨, 이그나티어스 돈네리, 그리고 다른 어떤 “원고原告들”에 대한 다수의 언급들이 있다. 우리는 또한 유명한 위조자들에 대한 다수의 언급들을 발견한다. 위조, 도적 및 표절이 조이스의 문학 세계에 대한 개념 속에 주어진 듯하다.

어서튼(Atherton)은 자신의 『경야의 책』 속의, 67-70페이지들에서 셰익스피어의 언급들을 포함하여, 문학 원고原稿들에 관한 무수한 것들을 처음 주석했다. 그

러나 원고 또한 위조일 수 있다. 베이컨과 루틀랜드 양자가 연극들을 썼다는 것이 어떤 이에 의하여 믿어졌던 반면, 루이스 티오볼드, 윌리엄 헨리, 그리고 타자들은 위조물을 셰익스피어의 원고로서 슬쩍 넘기려고 했다. 진실은, HCE의 이야기에 있어서처럼, 간신히 “접근할 수 있다.” 학구성과 저작권의 이러한 문제들은—헨, 베이컨 및 에그와 같은—거듭되는 조반 항목들이 언급하는 것들일 수 있다. 아서 톤이 주장하듯, “비록 그가 자주 셰익스액液과 베이컨란卵 및 등등으로 변장할지라도, 이것이 베이컨의 존재를 위한 … 이유인지라”(161.31). 셰익스피어는, 조이스 자기 자신처럼, 위조자가 됨을 비난받고 있다. “과연. 셰익스피어와 조이스는 역사의 퇴비더미로부터 소재를 흠침으로써, 그들의 진행 중의 작품을 형성하는 “위조자들”로부터 예외일 수는 없다. 썸의 “문사 썸”이란 제자題字는, 악명으로 유명한 위조자, 문사 짐(Jim the Penman)에 기초했다. 조이스는 자기 자신을 “제임스 희필자戲筆者”(James the Punman)로서 언급했다.

수많은 유명한 위조들이 이리하여 자주 『경야』 속에 소개되는데, 이는 위조의 썸에 대한 손의 거듭되는 비난의 바탕을 풍미한다. 스코틀랜드의 시인이요 위조자인 제임스 맥퍼슨과 그의 오시안의 “번역”이 『제임스 순항의 조류에 의한 맥퍼슨즈 오시안 순찰로부터』(123.25), “맥피어섬”(227.32), “매이크피어(恐)삼의 대양 大洋”(294.13), 그리고 “사이비 재미 소극사笑劇師”(423.01) 속에 암시된다. “볼티건 왕, 아아 고티건 왕!”(565.13)은 윌리엄 헨리 아일랜드의 『볼티건과 로에나』에 관해 언급하는 바, 이를 아일랜드(608.14에서 “아일랜드 씨”)는 1796년에 셰익스피어의 한 잃어버린 연극으로서 슬쩍 없애버리려고 애썼다.

『경야』 속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위조자는 루이스 티오볼드(『던시아드』에서 포프[Pope]의 “티볼드”)로서, 그는 또한 셰익스피어의 연극들을 위조했거나, 몰래 개봉한 것을 의심 받았다(티오볼드는 『이중 위선』이란 타이틀의 한 연극을 한 잃어버린 셰익스피어의 드라마라고 주장했거나와). “은둔자”(159.31)에서 손은 썸의 총명함(“극히 총명함”)이 위조에서 결과했음을 암시한다. 티오볼드는 또한 “신부 神父 티오볼드”(263.05), “볼드 티브”(28.05), “성 티오볼드 이브 말하라”(117.19), “성 티블의 날”(236.08), 그리고 “티브의 회색초야灰色初夜와 서수면西睡眠이 … 때까지”(424.29)에서 언급된다. 아서톤은, “Tibbs”가 위조자 키오볼드라는 가장 확실적 증거가 “티브의 회색초야灰色初夜와 서수면西睡眠”이란 마지막 인유 속에 있다고 믿는 바, 그 이유인즉, 다음과 같은 위조의 직접적 비난이 따르기 때문이

다: “그 속의 모든 암흑의 쓰레기는 내가 나의 하늘의 왕국에서 그대에게 보여 줄 수 있는 한 복사요, 다수의 마찰음 및 전적인 단어들이라, 그것은 그의 저속 껍데기이다!”

『경야』의 I부 5장인, 편지, 학구성 및 텍스트의 연구에 관한 구절에서, 조이스는 자신의 작품들(편지는 문학인 동시에 『경야』 자체이다)을 셰익스피어의 그것과 동일시하기를 시도한다. 손-존즈 교수는 그의 연설에서 묻는다: “슬문風門의 지창持槍남작이여, 옥獄도대체 누가 저 사악사絲惡事를 어찌자고 썼단 말이고?” (107.36). 비록 그가 “우리는 그의 진지한 저작성과 단번의 권위성에 대하여 어떤 부질없는 의혹을 허풍떨어서는 안 되도다”(118.03-4)하고 서술할지라도, 그는 셰익스피어의 위조자들과 모방자들(즉, “성 티오볼드 티브”(117.19)에 관하여, 그리고 “저들 사각자四脚者들과 같은”(123.01) 셰익스피어의 원고原告들에 관하여, 계속해서 많은 언급들을 행사한다. 손은 편지의 원고原稿와 번안들을 토론하고, 그것은 “차선次善의 돌빵과 함께 장대한 스타일의 묘굴墓掘”(121.32) —부패하고 고물의 너도 밤 껍질을 벗기는, 과거의 묘굴이라 판결한다. 이 편지에 대한 낡은 자료는 호머의 “올리시수적栗利匙受的”(123.16-올리시스) 『오디세이』, “저 비극적 수부”(123.23), 그리고 셰익스피어의 연극들(123.24의 “삼각 소매상”)을 함축하는데, 그것의 유형으로부터 썸-조이스의 이야기들은 위조된다. 더욱이, 편지를 쓴 필경사는 누구였던고? 그것은 셰익스피어 놀이를 하는, 우체부 손이 아니라 (125.14-15에서 “얼마간의 작은 라틴 웃음을 지닌, 별반 오만 없는, 집배원 한漢스”), 자기 자신 알미운 자, 문사 짐 같은 위조자, 즉 “문사 썸”(125.23)이다.

다음 장은 셰익스피어의 위조자들 혹은 원고자原告者들에 대한 몇몇 더 많은 언급들을 포함한다. 두 개의 예들에서 베이컨은 셰익스피어에 대한 상호교환적일 수 있는 이중쇄二重刷로서 사용되는지라, 즉 “베이컨 담당 또는 마부 역”(141.21: 전설은 젊은 셰익스피어가 런던의 극장고객들을 위해 말을 몰았다고 말한다)에 있어서 그리고 “셰익스액液과 베이컨란卵”(161.31)에 있어서 그러하다. 베이컨과 루트란드 공작(148.08) 이외에, 여기 한 쌍의 이국적 “원고자들”에 대한, 즉 “척스피어 점店의 더 많은 당과시糖菓詩 … 나는 지방세 납부 여인(돼지 여인)에 의한 …”라는 구에서(145.24-31) 엘리자베스 I세가 연극들을 썼다는 이론들에 대한, 그리고, 아마도, “한 때 우리들의 유일 허풍창虛風槍”(152.33-34)에 있어서 예수회에 대한 언급들이 있다.

제7장에서, 우리가 보아온대로, 손이 그의 형에게 부과하는 주된 비난들 가운데 하나는, “웬은 가짜요 그리고 저속한 가짜”이라, “게이어티 팬터마임”(180.04)의 극작가로서 성공에 관해 환상하다니, 한편, 그는 그린의 셰익스피어처럼 사실상, 위조자로서, 호머의 서사시의 내용으로부터 표절한, “서사적 표절된 수표”를 쓰고 있다는 것이다. 손은 웬을 표절자로 부르는지라(또한 525.07의“표절자”참조), 그리고 묻는다: “얼마나 많은 사이비 문체의 가짜 광증(shamiana)이, 얼마나 소수 또는 얼마나 다수의 가장 존경받는 대중적 사기가, … 위조된 거둬 쓴 양피지의 사본이, 그의 표절자의 펜에서부터 이 병적 과정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몰래 흘러 나왔는지를, 누가 말할 수 있으랴?”(181.36-182.03).

표절의 주제는 작품의 나머지 부분에서 자주 재발하고, 셰익스피어의 말들로 자주 표현된다. 제II부의 2장(아이들의 공부 시간)은 많은 언급들을 함유한다. 티오볼드가 “신부神父 티오볼드”(263.05) 속에 재현한다. 이그나티우스 도날리에 대한 언급들이 있는데, 그는 한 지도적 베이컨인이요, “무화목無花木”(261.27)과 “무모악마無謀惡魔 돈 넬리”(281.F3)에서 『위대한 암호문』의 저자이다. 그리고 최초의 베이컨인인, 젤라 베이컨이 “베리사 표지등標識燈”(267.12) 속에 나타난다. 기하학 수업 동안, “웬”장의 그것을 상기시키는, 형제들 간의 대결이 있다. 양소년들은 타원형의 생식기를 그리면서, 음란한 기하학에 그들의 수법을 행사한다. 돌프-웬은 “그대의 영원한 기하대지모幾何大地母의 전자궁全子宮을 비유무화과엽적比喩無花果葉的으로 보도록”(296.31-297.01: 그들의 어머니의 비유적 무화과나뭇잎/가정) 그리고 “그녀의 안전 발브”(297.27)의 암시를 케브-손에게 보여준다. 성(섹스)의 경이에 소개된 채, 케브는 190페이지의 손-스태니의 그것과 유사한 반작용을 갖는 바, 그는 웬에게 왜 그가 기네스 양조를 위해 일하거나 한 신부를 위해 일하지 않았는지 묻는다. 그리고 이어 그는 그에게 “아주 영리한”표절자로 비난한다: “여태 기네스 입사入社에 대해 생각 해 봤는고? 그리고 유감스런 로마의 목사의 충고를? 경찰이 되고 싶은고 … 글썄, 그대는 언제나 머리 명석한 녀석들 중의 하나였는지라… 가신자假信者 같으니! 글썄, 그대는 악마 자신의 약빠른 머슴이라, 그대 자신에게 공평하고 타자에 술책 부리는지라, 그렇고말고, 가짜 희망 같으니!”(299.30-300.06). 그의 형의 “창조적 마음”(300.21)을 질투하면서. 이씨가, 300.F1에서 “재머니크를 혹평하며, 소풍객 미키?”하고 평하자, 손은 부르짖는다: “사절판四折版의 책은 그에게 주지말지라! (300.30). 케브-손은 그의 형을 때릴 판

이나니, 이리하여, “그에게 사절판을 보여주지 말지라.” 그러나 사절판은 셰익스피어의 사절판으로 변용되나니, 왜냐하면 손의 불평은 그의 형이 원고의 표절자이기 때문이다. 이씨와 돌프는 그도 돌프-웁처럼 글을 잘 쓸 수 있다고 케브-손에게 말함으로써, 그를 달래려고 애쓴다. 케브는 편지(301.05에서 편지는 “멍텅구리에게, 나중에 미사를 위해”)를 쓰기 시작하지만, 다시 한번 돌프는 “몽극夢劇 속의 모든 만화인물을” 쓰는 법을 케브에게 가르치면서, 그에게 방도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 감사할 줄 모르는 케브는 그러자 자신의 형을 욕한다. 다시 한번 그들은 ‘정의’와 ‘자비’인지라. 그의 아우에게 다시 금전대부를 요구하면서(302.7) 그리고 그의 아우에게 편지(『경야』를 위한 그리고 문학을 위한 상징)를 쓰는 것을 도운 뒤에, 돌프는 케브-‘정의’로부터의 한 대 주먹으로 얻어맞는다—그것의 “자비 일격慈悲一擊”(303.27)에 대해 돌프-‘자비’는 재차 다른 뺨을 돌리고 그의 아우에게 감사한다: “아주 많이 감사하도다, 목적 달성!”(304.05) 그리고 “감사찬감謝餐”이로다(304.R1). 그가 자신의 비방자를 저주하기를 거절하자, 후자는 한편으로 웁에게 그의 표절을 계속 비난한다: “단조鍛造하라, 양쾌陽快한 심(Sunny Sim)신녀이여!”(305.04-5: 조이스는 “양쾌한 짐”[Sunny Jim]으로 친근하게 불려졌다).

표절에 대한 가장 분명하고 가장 직접적인 비난은 III부 1장에서 일어난다. 다시 한번 손은 편지 또는 연극을 작문할 것을 제의하는데(413 페이지에), 그것은 마침내 자신의 “애인들”(에스터와 바네사)을 위한 자신의 소유물을 남기는, 스위프트 같은 유서遺書처럼 보인다. “이것이, 나의 누친자淚親子, 그들 부재의 여성폭행 협회에 관한 거리증인면전距離證人面前(스트렛포드)에서 당필當筆된 나의 최후의 의지意志 유언장이나니”(413.17-18). 작문은 재차 셰익스피어의 말들로 서술된다. 이 행들은 셰익스피어의 유언에 관한 논쟁을 마음에 떠올리게 한다. 우리는 셰익스피어의 런던에서의 여성 교제에 대한 스티븐 데덜러스의 토론을 회상하거니와, 그가 그의 “집에 머무르는 페네로페”인, 스트렛포드의 안 하사웨이로부터 부재하는 동안, 그녀에게 자신의 마지막 유언장과 유서 속에 자신의 두 번째 가장 좋은 침대를 남겼다(“나의 최후의 장대臟帶”). 웁-조이스 자신의 편지는(여기 419.30에서, 『율리시스』는: “호신론濩紳論”인—『오디세이』인지라) 손에 의해 쓰레기로 서술되거니와 “... 그것은 좋은 산물이 아닌지라. 그것은 소량의 낙서요, 카비스즈병酒餅의 값어치도 없나니. 과음인지라! 완전히 숨차게도 경칠 찌꺼기 허튼 소리로다!”(419.32-33). 이어, 비논리적으로, 그는 편지가 자기 자신의 것이라

요구하고, 페이지 422-425에서 웹에 대한 커다란 비난 속으로 함몰하는지라, 셰익스피어의 원고자原告者들과 표절자들에 대한 언급들 사이에서, 표절과 위조에 대하여 그를 공격한다. 비난은 여기 우리에게 첫 부부의 7장의 것들을 상기시킨다.

손은 웹의 편지(즉, 조이스의 작품들)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실지로 표절된 것이었다고 암시한다: “-글쎄 그것은 부분적으로 나 자신의 것이라, 그렇잖은고?”(422.23). (아마도 손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라, 그는 이제 422.24-25에서 자신의 모자를 먹어치우나니, “동시에 … 삼위일체의, 자신의 벌집 형형 브라함 및 식용율모食用律帽을 한번 마음껏 물어뜯도다.”) 이어, 오히려 비논리적으로, 손은 웹의 편지가 처음에 셰익스피어로부터, “노산구老山丘로부터 빌린 것”(422.32)이라 주장한다. 비방은, “모방자”(423.10) 및 “난송자卵送者”(423.19 - 흔들어 팽개치는 자, 베이컨, 계란 그리고 모방품)로서 웹에 대한 언급들과 함께, 계속된다. 언급은 제임스 맥퍼슨(423.01에서 “사이비 재미 소극사笑劇師”)에 관해, 재차 루이스 티오볼드에 관해(424.29에서 “회색초야灰色初夜와 서수면西睡眠이 잠들 때까지”), 그리고 테리아 베이컨에 관해(423.25에서 “쿰[빛櫛] 가街의 할멈이 그의 머리채에서 다발을 강탈할 때까지”) 이루어진다. 티오볼드에 관한 언급 직후에, 손은 마침내 웹이, 언제나 “저속하여,” 그로부터 편지를 훔쳤다는 분명하고도 직접적인 공격을 취한다: “그[편지] 속의 모든 저주암자詛呪暗字는 복제품이요 적잖은 수의 무녀철자巫女綴字와 전성어全聖語들을 나는 나의 하늘의 왕국에서 그대에게 보여줄 수 있도다. 그의 저질 다변자 같으니! ... 해동解凍! 도허담盜虛談의 마지막 말! 그리하여 가일층, 새빨간 무교양의 조직 분파적 도적어중이떠중이! 그래요 … 그는 나의 셔츠의 화미話尾를 파도破盜했도다. 정定처럼. 슈미즈 화話を 위해 그건 어떡하고?”(424.32-425.03) 그것 속의 모든 경철 문자는 복사된 것이요, 많은 철자들과 성언들을 나는 그대에게 나의 것임을 보여줄 수 있도다. 그의 다변과 광기라니! 흠친 화술의 단어! 그리고 더욱 더한 것이라, 그것은 나의 주조鑄造된, 나 자신의 『소요의 시대』에서 흠친, 명백한, 저질의, 무교양의, 조직적이요 주제적 강도이다. 그는 나로부터 이야기를, 확실히, 훔쳤다. 손은 계속해서 주장하는 지라: “나의 삼엽三葉 토끼풀 대본臺本, 생생의 전통삼심렬本傳統三深裂本, 만일 백일白日에 노출된다면 … 저 수치의 위조극단과격론자偽造極端過激論者, 나의 삼 열형熱兄, 음모주자陰謀主者는 가청可聽의 흑치장인쇄黑治裝印刷로 정통친교精通親交하는 것을 훨씬 능가하리로다. 과격비극過激悲劇의 시인화상서詩人

火傷書! 오문자誤文字의 아카데미 희극! 나는 그들, 순順(툼), 심深(딕) 및 급急(하리)을 나의 심아안心我眼에 모두 품고 있나니”(425.20-25). 손은 자신이 썸만큼 많이 시적 천재를 가졌다고 단언하고, 그는 비교하여 자신의 형의 모습을 창백하게 보이도록 할 만한 작품을 쓸 수 있으리라. 그는 자기 자신의 대본은, 3가지 2절 판에서, 만일 그것이 빛을 보도록 여태 허락된다면, 진짜요, 정통파적 및 생의 권위본(조이스의 『율리시스』와는 달리)이 될 것이요, 저 엉터리(bogus) 위대성의 창피한 표절자(bolshoi는 “위대한”의 소련어이다), 썸(“수치”), 나의 샴인의(Siamese) (“soamheis”는 언어상으로 “I am, he is”를 암시하거니와) 쌍둥이가 흑백으로, 프린트로, 잉크로 할 수 있는 것을 훨씬 초월하리라 말한다. 그의 작품은 문자 그대로의 ‘과오의 코미디’이요! 나는 나의 눈 속 깊이 모든 허구적 인물들, 모든 톼, 딕 및 해리(어중이떠중이)를 지녔도다(I, ii, 185에서 햄릿의 “나의 마음의 눈 속에, 호레이쇼”).

아마도 어느 비평가들 치고 조이스가 자기 자신을 『피네간의 경야』 속에 위탁한 것만큼 더 철저하고 강력한 문학적 고찰에 그를 위탁할 수는 거의 없었을 것이다.

썸-조이스의 위조와 셰익스피어간의 연결은 진술로서 밝혀져야 한다. 우선적으로, 셰익스피어 역시, 다른 저자들을 표절함으로써건(그런데 따르면), 혹은 프란시스 베이컨 또는 다른 자들에 의하여 대신 상상적으로 쓰인 연극들을 실지로 저술하지 않음으로써건, 위조로 자주 비난받아 왔다. 그런고로, 『피네간의 경야』에서 위조에 대한 공격은 셰익스피어의 말들로 거듭 수놓아지는지라, 손은 썸이 티오볼드가 되는 것을, 혹은 셰익스피어가 의도적으로 행했던 “무대 영국인”을 복사하는 것을, 비난한다. 다른 한편으로, 형제들-저자들 간의 경쟁은 조반朝飯의 말들로서 표현된다. 물론 “Francis Bacon”이란 말이 이러한 언어유희에도 인도한다. 베이컨과 셰익스피어는 『경야』에서 싸우는 쌍둥이, 손과 썸의 문학적 변안이 되거니와, 이들은 편지의 진실한 저작권, 이씨의 사랑, 그리고 이러한 다른 상賞들을 위하여 다툰다. 우리는 형제들 간의 다툼에 대한 존즈=셰익스피어의 변안이 일상의 식료품의 말들로서 제시되고 있음을 보아왔으니, 버터, 치즈 및 마가린이 그것이다. 조반 식탁의 이러한 식품들은, 부자父子의 갈등의 또 다른 변안으로서, 햄릿과 계란, 또는 베이컨과 계란, 셰익스필(shakespill, 환丸) 및 계란(eggs)이 된다. 이리하여, 『경야』에서 이침 식사에 대한 거듭되는 언급들은 형제의 갈등, 위조, 셰익

스피어, 그리고 물론, 회귀인지라, 왜냐하면 조반은 각각의 새 날과 함께 다가오기 때문이다.

### 세익스피어류의 조반

조이스는 세익스피어의 이름들이 형제들의 경쟁의, 그리고 계속되는 조반과 *회귀*의, 그의 연관된 주제들에 놀랍게도 알맞은 것임을 발견했다. 계란은 *회귀*를 위한 멋진 상징이니, 왜냐하면 그들은 새 생활의 원천이요, 그들은 새벽에, 조반에서 먹히기 때문이다.

예술가적 감수성을 위한 전통적 모델인, 햄릿은 조반 식탁의 썸-세익스피어의 절반을 대표한다—햄과 에그 둘다(76.05-6에서 “햄의 구유 파괴란자破壞卵者들”) 그리고 오믈렛: “나의 간肝을, 자 그럼 약간의 오믈렛을, 그래요, 아가씨! 맛있어요, 나의 간肝을! 당신이 계란을 스스로 깨야 해요”(59.30-32) 그리고 “여기는 가부락家部落인지라”(586.18). 그러나, 경쟁자, 손-베이컨은 썸-세익스피어가 날조자요, 그리하여 진짜 ‘시인’은 햄이 아니고 베이컨임을 주장하는지라, 이는 『경야』에서 햄과 베이컨에 대한 모든 언급들을 설명한다. 베이컨은 “베이컨 또는 마부역”(141.21)에서처럼, 세익스피어(및 햄)를 위한 대용품이다. 쌍둥이들은 “눈 찡그려 흘쩍이나 마음 착하게 먹나니, 마치 세익스액液과 베이컨란卵처럼”(161.31). “세익스액”의 돼지 같은 불결한 공허성을 위해 우리는 햄 또는 베이컨을 대신할 수 있고, 만족스런 조반 접시를 가질 수 있다.

“세익스액과 계란”은 존즈 교수의 강연에서 부루스 및 카시우스 내에서 일어나는데, 이에서 쌍둥이들은 버터와 치즈로서, 로마의 조반의 세계에서 지배를 탐하는 브루터스와 캐시어스로서 나타난다. 부루스와 카시우스는 이리하여 또한 교수에 의하여 조반 음식의 말로서 다음과 같이 서술 된다: “이것은, 물론, 우리들이 [쌍 형제] 아이 시절에 왜 놀이를 배워야 했던가를 역시 설명하나니: *꼬마 한스는 한 조각의 버터 바른 빵, 나의 버터 바른 빵! 그리고 야곱은 그대의 햄 샌드위치라! 그래! 그래! 그래!*”(163.04-7). 한 형제(“brot”)는 한 조각의 빵이라, 버터(Butterbrot, 독일어)와 함께—또는 부루러스-부르터스. 다른 형제, 카시우스-캐시어스는, 햄 샌드위치이다(Schinkenbrot, 독일어)—아마 치즈와 함께. 에그는, 다른 한편

으로, 팡뎀보(Humpty-Dumpty)-HCE를 대표하는바, 그의 매가진 벽의 추락은 두 아들들로 하여금 새 최고의 계란(에그)이 되기 위해 다투게 한다. “계란이 전벽계 상全壁界上으로 안가락安價落하는 동안 브르투스(Bure)(버터)가 브리치즈(Brie)(치즈, 또는 카시우스) 위에 고가高價하게 될 것이라”(163.27-28). 이리하여, “세익스액과 계란”의 “에그”성분은 썸과 손의 HCE 편이요, 그들은 새 최고의 계란 혹은 새로운, 재再-진로의 HCE-Humpty가 되기 위해 다투거나 싸운다. “더 많은 제단명祭壇命까지 햄(害)과 계란(痛)과 함께!”(229.01) – 아버지가 변할 때까지(회귀), 햄과 계란과 함께.

햄과 베이컨은 이리하여 회귀의 다가오는 조반에서 정점을 위해 싸우는 쌍둥이들과 연관된다. 제1부 8장에서, ALP는 풀죽은 – 그리고 추락한 – HCE에게 세익스피어류의 조반을 대접하는데, 이는 “그녀의 혼잡 계란 요리, 아무렴, 그리고 토스트 위에다 덴마크 베이컨 그리고 한 잔 반의 멍멍한 그린란드 산 홍차 또는 식탁 위에 모카 산 설탕 탄 커피 또는 서강차西江茶 또는 진예眞藝의 백랍 컵의 고사리 주酒 … 그리고 연한 연부軟浮 빵을 포함하는지라, 웬고하니 저 돼지 사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199.16-20). 그녀의 돼지-사내를 기쁘게 하려고 애쓰면서, 그녀는 그에게 조반을 대접하는바, 그것은 계란(“에그”)와 아니, “에그”를 위한 키스와히리), 토스트 위의 덴마크 베이컨, 한잔 반의 멍멍한 녹차(또는 코펜하겐), 소량의 카페 모카, 그리고 등등 – 그리고, 재차, 햄 샌드위치(Schinkenbrot 및 프랑스의 jambon)를 포함하다. 아마도 ALP는 특선요리를 접시에 담아내어놓고 있는 지라 – 햄과 베이컨 사이 – HCE의 미래의 상속자를 위해서이다. 나중에, HCE는 이리하여 만찬을 먹는다: “이제 양조인은 이따금 불만월동不滿越冬하여 베이컨 햄을 슬프고도 천천히 우적우적 씹어 먹는지라”(318.20-21). 양조인은, 확실히, 주점주인 HCE이다. 이 행은 『리처드 3세』의 서문에서 조이스의 재창조인지라. “지금은 우리들 불만의 겨울이니/ 요크의 이 아들에 의해 만들어진 영광스런 여름이다. 세익스피어의 “요크의 아들”은 조이스의 마음속에 요크 햄으로 변용한다. HCE가 슬프게 그리고 천천히 우적우적 씹는 “이러한 내용물”은 일종의 햄 샌드위치를 형성하는지라, 이는 그의 “배콘햄”(backonham)에서 요크의 “아들들,” 햄 베이컨과 결합한다. ‘샌드위치의 백작’이 여기 없을 지라도, 프란시스 베이컨과 버킹엄 공작은, 이 멋진 중첩어重疊語로 샌드위치 된 채, 진짜 BLT가 된다. (주: 버킹엄 공작은 『리처드 3세』에서 리처드의 심복이었다. 햄과 베이컨은 경쟁자이기 때

문에, 그러나, “backonham”에 대한 언급은 셰익스피어의 저작권에 대한 “두 라이벌”일 수 있다. 프란시스 베이컨과, 셰익스피어 연극들의 “각색자”요 개필자인, 존 세필드, 버킹엄 백작.)

쌍둥이들은 이리하여 반대자들의 브루노식 연합에 있어서 단지 양극단들이요, 마치 썸과 손이 새로운 HCE를 형성하기 위해 결합할 듯, 전체의 아버지-창조자-신으로 귀착하는 꼭 같은 연합의 번안이다. 썸-데이브는, 예를 들어, “어떤 데이비 브라운-노우란, 그의 천국에 놓인 쌍둥이로 (이 돈골豚骨의 견犬시인은 자신이 부여한 베테겔러트라가 교수자絞首者の 이름 하에 스스로를 가장했거니와)” (177.20-22). 재차, 여기 햄(ham: “hambone” *jambon*)이 존재한다. 햄-셰익스피어와 베이컨은 꼭 같은지라(베이컨 지지자들은 그렇게 주장했거니와) 또는 브루노류의 (브라운-노란, 및 노란인 브루노) 쌍둥이들로서, 그들은 썸소의(Saxo’s) 햄릿-베테겔러트라의 익명-별명 아래 가장된 채, 양자들은 “견시인(dogpoet),” “창조의 하느님 같은, 예술가”(P 215)가 되기를 요구한다.

조반은 베이컨, 햄 및 계란으로 특징짓는다. “베이컨의 계란 아침을 먹다니 … 그리고 정강이 살 햄을 자신의 이전 동료들과 함께 최고 아침으로”(41.13-15) – 베이컨-조반, 햄(독일어의 schinken) 및 두 개의 계란과 함께 최고-아침으로. 햄과 베이컨 – 또는 썸과 손은 – 한 개의 계란(HCE)의 쌍둥이들 및 산물들인지라, 온-손이, 그의 쌍둥이 형제와 자기 자신에 관해 말하듯 하다. “나는 나에 대한 피彼햄을 기억하는지라, 우리가 형제 및 매처처럼 우리들의 양념병과 포리지 죽을 함께 나누고 있었을 때 … 우리들은 마치 두 개의 반숙란半熟卵 덩어리 마냥 같은 나이 급에 속했도다”(489.15-19). 온은, 그의 쌍둥이(캐스토와 포릭스), 썸, 또는 “햄,” 그들이 형제자매처럼, 한 개의 계란 속의 두 덩어리처럼 닳았던, (포리지 죽과 양념병 오일의) 유년시절을 회상한다. 이제 그들은 서로가 대항하여 새로운 최고 계란, 또는 HCE가 되려고 다투고 있다.

두 쌍둥이들 가운데 어느 쪽이 새 HCE로서 재차 코스를 취할지는 의문이다. 대답은 – 그것은 『경야』에서 베이컨과 셰익스피어(그리고 브루노)에 대한 조이스의 용도의 많은 것을 설명하거니와 – 물론, 그들 양자로서, 반대자들의 브루노의 결합에 있다. 새로운 HCE는 삼의 반대자들의 종합이 될 것이다. “아마 개미와 연초煙草 매미의 고담화古談話에서처럼 그건 얼마나 허식율적虛飾的 일고! 대단한 우행무구자愚行無垢者들 같으니! 그들의 강아지 시절의 연마정력研磨精力!

양자의 자심효포慈心哮咆은 그들의 조반까지는 효모과자酵母菓子 될지니. 나는 그들 쌍자들 사이에 나의 동류축복銅類祝福을 남겨둘지라, 장미능보薔薇稜堡를 위하여, 녹아綠牙를 위하여”(563.27-31). 이 구절은 침대 속의 쌍둥이들, 제리와 케빈을 서술한다. 이리하여, 재차, 그것은 썸과 손의 재화再話인지라, 쌍둥이들 간의 맥베드(바보천치에 의하여 말해지는 이야기)의 쌍둥이 간의 다툼의 주제—개미와 베짖이(포미오와 시가렛, 또는 『로미오와 줄리엣』, 로젠크렌츠와 길던스틴(“장미꽃짜기”)와 “녹독아綠毒牙”)이다. 그들을 감독하면서, HCE는 그들 양자에게 자신의 축복을 의지(will)하는지라, 왜냐하면 그들은 새벽에 연합할 것이기 때문이다: “양자의 효모심酵母心은 그들의 조반에 의하여 고체효모 되리라.” 혹은—새로운 시저가 되는 브루터스와 캐시어스 간의 투쟁을 회상하는 말로서—역사의 긴 악몽 뒤에, 새벽에 “브리터스와 고씨어스는 저 일사장日射場을 더 이상 마상창시합馬上槍試合할 수 없는지라 그러나 한 가지 자율속죄自律贖罪를 기록할지니”(568.08-9). 브루터스와 캐시어스는 더 이상 시저에 의해 비워진 자리(아들[son]의 자리, 그리고 태양[sun]의 자리)를 탐하여 마상 창 시합을 하지 않으리라. 오히려, 그들은 속죄(“기록[mark]”), 또는 브루노의 한 순간을 관찰하리라. 다른 말로, 그들은 새로운 시저에로 연합할지니—딕시 말해, 안코니우스는 나의 자율속죄를 표하도다”(mark one autonment).

새벽과 회귀는 아침과 여명을 긴 밤의 단식과 경야에로 가져오리라: “햇볕 쬐는 조반자朝飯者인, 그를 위하여 연거푸 다가올 아침의 난란亂卵이 신중히 마련되어 있으리로다”(12.15)—아침이 오면, 조반을 위해 계란이 대령하여 있을지니, 그리고 조반자들이 그(HCE-피네간)를 애도하기 위해 다가오리라. 꿈과 어둠의 긴 밤이 있어왔나니, 그러나 새벽은 낮과 경야의 빛을 가져오리라. 이리하여, 그것은 “광급조식운반자光急朝食運搬者”: “침묵의 수탉이 마침내 울지로다. 서지가 동東을 흔들어 깨울지니. 그대가 밤이 아침을 기다리는 동안 걸을지라, 광급조식운반자光急朝食運搬者여, 명조明朝가 오면 그 위에 모든 과거는 충분낙면充分落眠할지니. 아면我眠”(473.22-25). 조반과 반대자들의 회귀로-기록된 연합 간의 이 연결은 『경야』에서 셰익스피어와 베이컨의 용도에 대한 열쇠가 된다. 왜냐하면, 비록 베이컨과 셰익스피어가 경쟁의 쌍둥이로서 싸울지라도, 중국에는 여전히 놀이(연극)들이 있을지라. 비록 썸과 손이 편지의 저작권을 위해 다툰지라도, 새로운 HCE가, 편지를 요구하기 위해, 그들의 양 상像들로부터 단조鍛造 된 채,

그들 사이에 솟을 것이기 때문이다. 셰익스피어이든 또는 베이컨이든 문학의 연극이나 편지를 저작하는 동안, 새로, 회귀된 셰익스피어는 비코(Vico)류의 『경야』에서 편지를 다시 쓰면서, 과거의 웹들, 손들 그리고 셰익스피어 같은 이들에 의하여 쓰인, 퇴비더미 속의 모든 편지들로부터 단조된, 한 표절자일 것이다. 그가 대접할 『경야』 조반은 “차선次善의 롤빵과 함께 장대한 스타일의 묘굴墓掘”(121.32)일지니, 그러나, 그가 모든 역사와 무한한 역사적 가능성의 방안에서 모든 가능성으로부터 단조하고, 그들을 탐험하는 한, 그는 이제 더 이상 셰익스피어의 제자가 아니요, 그 자신이 아버지-창조주로서 찬탈하는 아들인지라, 그리하여 아버지와 과거에 관해 명상하고, 그를 재창조하며, 상상력의 힘을 통하여 역사를 패배시킨다.

작품의 나중에 새벽이 접근하자, 우리는 『경야』에서 다가오는 조반에 대한 짐진적 많은 언급들을 기대한다(고로 과연 발견한다). 작품의 후반에, HCE, 조반 및 여명인-“브랙포스 씨”(575-11)는 “월 조반(Will Breakfast)의 새로운 스타일 아래”(575.29) 자기 자신을 꿈꾼다. 이 “월 조반”은 『경야』에서 분명히-햄 및 에그와 연결되는 월 셰익스피어이요-그리고 새로운, 회귀의 HCE로서, 그는 새벽에 조반(breakfast)을 가질 것이다(will). 여기에 셰익스피어와 경야의 조반 간의 연결에 대한 가장 분명한 서술이 있다: 양자는 “Will Breakfast”인지라, 왜냐하면 양자는 회귀의 변화-조이스의 퇴비더미 또는 경야 속에 종합된 새로운 셰익스피어들과 베이컨들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회귀와 갱신(부활)의 부분인-IV에서 여명이 마침내 도착할 때 (593.02에서 “모든 여명黎明을 부르고 있나니. 모든 여명을 오늘에로 부르고 있나니”)-그것은 깨어남과 아침의 상징인, 조반에로의 소환에 의해 동행된다. “셰익스피어의” 조반들은 이 마지막 부에서 풍부하다. 『경야』는 이제 “침실조식寢室朝食에 관한 이야기”(597.16)-침대(꿈)와 조반(경야)에 관한 이야기이요, 그리하여 새(鳥)(불사조)가 재로부터 솟아나고 있다. 조반은 모든 이를 위한 것이요, 주위에는 햄과 에그, 작은 계란들이 큰 프라이팬 속에 함께 뒤 썩혀져 있다. “그리하여 모든 쌍십위기雙十危機를 아주 교차사보충交叉謝補充하게 할지라, 작은 아란我卵들, 여란황汝卵黃 및 유유悠乳, 원대색遠大色の 범우주汎宇宙 속에. 온통 둘레 열熱햄란조화卵調和와 더불어. 신진실神眞實!”(613.10-12). 다투는 쌍둥이들, 작은 계란들 (그대와 나, 노른자위와 밀크, 또는 버터와 치즈)의 십자로 엇갈린 쌍으로 하여금 한층 큰 냄비 및 우주 속에 함께 뒤 썩히게 하라-

그리하여 브루노-비코의 회귀, 하느님의 휴전休戰 속에 속죄를 표하게 하라. 그것은 “조반”(613.23)에로의 매력 있는 부름이도다.

과거의 계란들이 뒤 썩히는 중요성은 조이스의 비코의 이론의 중요한 서술 속에, 특히 문학에 대한 그것의 응용에서, 분명하다:

우리들의 완전분식完全粉食 수차륜水車輪 … (그이 마태, 마가, 누가 또는 요한-당나귀로, 모든 소학교 소년 추문생醞閨生들에게 알려진, “마마-누요,”) 탕탕탕연결기連結機(커플링) 용광제련鎔鑪製鍊 탈진행과정脫進行過程과 함께 자동동시적自動同時的으로 전장비前裝備된 채, (… 계란과열, 계란섞음, 계란매장埋葬 및 랭커셔식(자유형) 레슬링 부화작용孵化作用으로 알려진) 일종의 문맥門脈을 통하여 후속제결합後續再結合의 초지목적超持目的을 위하여 사전분해事前分解의 투석변증법적透析辨證法的으로 분리된 요소들을 수취受取하는지라… 사실상, 우리들의 노자老者 피니우스의 동고승부대담同古勝負大膽의 아담원자구조原子構造가, 우연지사 그걸 효력적으로 할 수 있는 한 전자電子로 고도高度히 충만된 채 … 꼬끼오꼬끼오꼬끼오꼬끼, 그리하여 그 때 컵, 접시 및 냄비가 파이프 관管 뜨겁게 달아오르는지라, 그녀 자신이 계란에 갈겨 쓴 계필鷄筆을 들고 계란에 낙서를 낙필落筆하듯 확실하게. (614.27-615.10 필자 이텔릭)

우리는 비코의 환(“비코미터”)의 반복을 부화孵化하는, 회귀의 순간에 당도했다. 환은, 우리들이 그들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돈크(당나귀 보팀, 그런데 그는 햄릿의 “꿈의 요한”)—또는, 아마도, 503.20에서 “우탄憂歎의 덴마크 저소底所”인, 나귀-보팀)라 부르든, 혹은 파란破卵, 혼란混卵 장란葬卵 및 도끼-로서-도끼-강통이라 부르든 간에, 4부분을 갖는다. 그것은, 마치 “작품의 냄새나는 표진적表進의 과정”처럼, 계속적인 “과정”이다. 『경야』 또한 『진행 중의 작품』인지라. 조이스는, 자신의 진행 중의 “박수치는 쌍의” 작품이, 셰익스피어의 『트로이러스와 크레스다』처럼, “속인의 손바닥으로 박수치는 발톱”이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오해하는 비평가들에 의하여 비난받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새벽은, 그러나—형태에서 형태, 문자에서 문자, 단어에서 단어로, 그것의 문맥門脈(portal veins)을 통해 신선한 요소들을 수령하면서, 새로운 HCE, 새로운 생목生木, 새로운 저자-아버지-창조주를 가져오도다. 그러나, 쓰레기 더미로부터의 편지 마냥(그리고 모든 “찌꺼기문학”마냥), 새 환은, 에텐의 본래의 쓰레기 더미에서 마냥, 꼭 같은 원자의(atomic) 그리고 아담의 구조를 가진, 옛것과 꼭 같은 지라(“티끌로부터의 편지”), 늙은 HCE-아

담은 새 HCE 및 『경야』에 관한 학구(편지를 파헤치는 암탐마냥)의 모든 새로운 작품들이 단지 옛 편지 자체의 재화再話요, 셰익스피어와 조이스의 새 표절된 번안翻案이듯, 환생되도다. 아침이 다가올 때, 수탉은 여전히 울 것이요(“꼬키오오”) 그리고 조반(펼 펼 끊는 식사-컴, 접시, 주전자 및 에그)은 여전히 대접받으리니, “누가 당장 편지를 펼하고 있는지” 무관한 채, 누가 “암탐을 갱坑에 처넣는지” 무관한 채, 여전히 “계란에는 굵힌 낙서들이 있도다.” 모든 문자들과 학구성은 똑같은 날조된 편지의 기본적 재결합이요 재작업인지라, 고로 『경야』와 조이스의 모든 작품들은 다른 사람의 오디세이이요 드라마의 재작업이다. 새벽은 새로운 조반과 새롭게 날조된 셰익스피어를 대접하기 위해 솟는도다.

## 결론

조이스는, 그러나, 현실주의자였다. 그는 그의 『경야』가 어두운 밤을 통과하여, 부활될 때까지, 그것이 “들 것 문학(literature)”의 위대한 고전을 위한 퇴비더미를 통하여 휘젓는 독자들에 의하여 열렬히 조반早飯되되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네간의 경야』 자체의 텍스트에 있어서, 그는 그의 최후의 작품의 위기와 종국의 승리를 예언했다. 그는, 우리가 “조각되고 수정되고 연소緣掃되고 푸딩파이가 된, 깡통 응축 식품으로 익살 된 고래 알(卵) 마냥 아주, 마치 그것이 이상적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저 이상적 독자에 의하여 그의 머리가 가라앉거나 또는 수영하듯 맴돌 때까지 영원일야永遠一夜 동안 일백만조 一億兆 이상을 코 비비며 매달리기를 선언하는 양, 이 전대미증유의 만홍장례”(120.09-14)를 보기를—다시 말해, 이 작품(“장례”또는 경야)이 퇴비더미의 모든 조각들로부터, 조각되고 수정되고 연소緣掃되고 푸딩파이가 된 채, 그것의 천성에 있어서 그리고 가능성의 그것의 탐구에 있어서, 변화무쌍하여, 만인을 위한 흥興이 되고, 영원히 그리고 밤 동안 모든 역사의 이상적 꿈의 책을, 발견하기를 바랐도다. 비록 조이스는 이것을 바랐을지언정,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는 뽀경기競技(Wimmegame)의 위조품으로부터 명성의 다손실多損失을 가지리라는 것을”(373.16-17) 잘 알았다. 『율리시스』에 대한 문학적 명성이 마침내 솟기 시작할 동안, 『피네간의 경야』는 재차 저자에게 불명예를 가져올지 몰랐다. 문학계가

16년 동안의 그의 위대한 작품을 광인의 기벽적 날조의 상황으로 추방하리라는 것을 예견하면서, 조이스는 셰익스피어의 행운을 단지 시기하듯 바라볼 수 있었으니, 부르짖었으리라: “대지大地와 구름에 맹세코 하지만 나는 깔깔 새 강둑을 몹시 원하니, 정말 나는 그런지라, 게다가 한층 포동포동한 놈을!”(201.05-6).

조이스는 자신의 문학적 명성이, 회귀의 불사조가 재(灰)로부터 솟으려할 때, 또한, 자신을 위한 시간이 있으리라는 것을 과연 알았다:

그러나, 소년이며, 그대는 강強 구九 펄롱 마일을 매끄럽고 매 법석 떠는 기록시간에 달행達行했나니 그리하여 그것은 진실로 요원한 행위였는지라 … 그대의 고도보행高跳步行과 함께 그리하여 그대의 항해航海의 훈공勳功은 다가오는 수세기 동안, 그대와 함께 그리고 그대를 통하여 경쟁하리라. 에레비아가 그의 살모殺母를 침沈시키기 전에 불사조원不死鳥園이 태양을 승공昇空시켰도다! 그걸 축軸하여 쏘아 올릴지라, 빛나는 베뉴 새여! … 머지않아 우리들 자신의 회불사조稀不死鳥 역시 자신의 회탑灰塔을 휘출揮出할지니, 광포한 불꽃이(해)태양을 향해 활보할지로다. 그래요, 이미 암울의 음산한 불투명이 탈저멸脫疽滅하도다! 용감한 족통足痛 혼이여! 그대의 진행進行을 작업할지라! 불들지니! 지금 당장! 승달勝達할지라, 그대 마魔여! 침묵의 수탉이 마침내 울지로다. 서시가 동東을 흔들어 깨울지니. 그대가 밤이 아침을 기다리는 동안 걸을지라, 광급조식운반자光急朝食運搬者여, 명조明朝가 오면 그 위에 모든 과거는 충분낙면充分落眠할지니. 아면我眠. (473.12-25)

틴달(Tindall)은 이 중요한 구절을 둘러싼 문맥을 아래처럼 설명한다. “한 망명자로서, 손은 썸이다. 애란의 갈채에로 의기양양 돌아오면서, 썸은 손이 되리라 … 그는 혼 또는 썸 및 손이요, 그리하여 그는 그들의 부활절 봉기를 함께 즐기리라, 이 473페이지의 모든 것은 장의 최후요 가장 중요한 페이지이다.” 이리하여, 혼은 썸과 손의 연합으로서 조이스 자기 자신이다. 조이스는 자신의 글쓰기를 (『초상』에서) 스티븐 데덜러스 같은 운동장 트랙 주위의 경주와 비유하지만, 구절(조이스의 작품들)에 대한 그의 위업偉業(feat 또는 발 feet)은 다가올 수세기 동안 논쟁되리라. 그러나, 조이스는 자신의 불사조(‘사자의 책’에서 베뉴의 새)야 말로, 최후로, 드디어 솟을지니, “머지않아” “회불사조”는 그것의 정신을 발화發火할 것이요, 피닉스 공원(“회불사조 역시 자신의 회탑灰塔을 휘출揮出할지니”)의 화장용 장작으로부터 솟을지니, 불타는 태양을 향해 위쪽으로 활보하리라. 이미 어둠은 사라지

고 있다. 우리는 “통증으로부터 고통 받는,” 지친 눈을 또는 『진행 중의 작품』에 종사하는 저 16년 동안 스스로를 격려하는, “용감하고, 죽통의 혼”을 마음에 그럴 수 있다. 조이스는 마왕적 악마, 웹-닉 또는 예술가 스티븐 데덜러스가 결국 성공하도록 기도하는지라, 그 땀 “광급조식운반자”는, 수세기의 논쟁 뒤에, 경야와 회귀를 가져올 것이요, 그 땀 침묵의 수탉이 『피네간의 경야』를 위해 마침내 올 것이다. 조이스는 그의 구절을 “아면”으로 결구한다.

조이스는, 『경야』가, “다가올 수세기에 걸쳐” 자신의 문학적 십자가상(수난) 일 동안, 그의 명성은 결국 부활을 경험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오, 너는 너 자신의 참혹가정慘酷假定的 십자가에 목힌 명예 속에, 가통架痛했나니!) 너의 시드니 토요土曜의 소요락騷擾樂과 성휴야聖休夜의 잠을 너로 하여금 갖도록 하기 위해 (명성은 취침과 경야經夜 사이 네게 오리라) 그리고 유월절 안식준일安息準日과 꼬끼오 수탉이 단막單幕을 위해 올 때까지”(192.17-21). 조이스는 동시에 예수요 햄릿인지라, 그들 양자는 변호辯護를 기다리기를 배워야만 했다. 조이스는, 예수 처럼, 그의 자신의 “잔인소설殘忍小說”(cruelfiction: 자신에 대한 박해로서 『올리시스』와 『경야』)의 십자가에 박해 당했으며 (“고문당했으며”), 부활절 일요일을 기다리기 위하여 토요일 향연을 무시하는, 자신의 예술을 위한 순교자였다. 조이스는 자신이 『피네간의 경야』로부터 명성의 상실을 피로워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명성은 잠과 각성(깨어있음) 사이에서 그대에게 다가오리라” 예언한다—즉 잠(『올리시스』의 종말에서 물리와 불륨의 잠 또는 HCE의 잠자는 꿈)과 각성(『피네간의 경야』) 사이, 명성은 궁극적으로 조이스에게 다가오리라. 그는 3일 쯤 부활하리라(그 때 또한 수탉이 그리스도 자신의 잠과 각성 사이에 베드로를 위해 울었는지라). 수탉은 또한 덴마크에서 울지니 (햄릿 왕의 유령은 I.i.157에서 “수탉의 울음에 사라졌나니”), 거기서 햄릿, 역시, 죽음, 잠, 각성 및 꿈의 생각으로 투쟁했다. 명성은 마침내 꿈과 각성 사이에 올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이스는, 비평가들이 『경야』를 조롱하고, 잘못 전할 방도를 예견하면서, (아나 리비아처럼) 경이했어야 했나니: “일백 가지 고통, 십분 지일의 노고 그리고 나를 이해할 사람 있을까?”(627.15). 『피네간의 경야』와 같은 이러한 광기가 언젠가 감상되거나 혹은 이해 될 수 있을까? 아마도 그러한 질문에 대한 가장 멋진 대답은 조이스가 『경야』와 그의 자신의 기법들에 관해 예언한 아래 구절에 나타나 있다:

그러나 저쪽 방향으로 끝에서 끝까지 씌우로서, 되돌아오며 그리고 끝에서 끝까지 이쪽 방향에서 쓰다니 그리하여 위쪽 세로로 베어 켜 갈 지푸라기의 선線 및 큰 소리의 사다리 미끄러짐과 함께, 오랜 썸 장지葬地와 야벳 재귀향 再歸鄉, 햄릿 인문학까지 그들로부터 봉기하게 할지라. 잠잘 지라, 거기 황지荒地에 헤지慧智가 있단 말인고? (114.16-29)

다시 말하건대: 문학 (또는 편지들)은, 또한 그것의 회귀 및 추락, 미끄러운 들것들 (마치 탄생과 깨어남에서처럼) 그리고 그것의 흘러내리는 후락後落들(인생의 후반 및 추락하는 사다리)을 지낸다. 문학적 평판은 그네 모양처럼 기복起伏하는지라, 이제는 썸에게 (“나를 내 자리에 맡길지라”), 이제는 햄에게, 그리고 이제는 야벳에게(“재차 역기습하라”) 변전한다. 햄릿은, 덴마크의 성쇠를 관찰하면서, 생과 사의 의미에 관해 독백한다: “황지에 헤지는 어디 있단 말인고?”(기다림의 지혜는 어디 있는고? - 햄릿의 거듭되는 궁지. 또한, 아마도 “죽음, 그대의 자통刺痛은 어디에?”의 메아리이다). 조이스-햄릿은 철학적으로 자기 자신의 2절판들 그리고 그들의 문학계에서의 감수의 기회를 의심하며, 필업筆業에 있어서 즉각적인 보상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나니: “펜마크스의 작은 평화”(189.06)는 거의 없는지라. 그는 궁극적 인식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는 자문하나니: 이러한 기다림 속에 어디에 헤지는 놓여있는고? 그것은 “황지”속에, 퇴비더미 속에 놓여있도다. 왜냐하면 편지/ 쓰레기(『경야』)는 잠자며, 기다림 속에 그리고 황지 속에(“잠과 각성 사이”) 쉬며, “덴마크를 위해 수탉이 울 때”(192.21)까지 귀담아 들으면서, 그리하여 어떤 파헤치는 학자-암탉(112.29)(어떤 “예술 양 孀”의 비디처럼)에 의하여 발굴될 시간은 도달할지니, 『경야』가 퇴비더미의 재에서 솟아, 참되게 감상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리라. 아마도 조이스는 궁극적으로, 셰익스피어처럼, 감상적 강독의 대중을 가질지니. 그러나 그는 햄릿에 의해 취해진 의문을 분담하도다: 기다리느냐, 기다리지 않느냐, 사느냐, 죽느냐-영원한 잠의 황지에 헤지는 있는고? 잠, 꿈, 각성, 햄릿, 그리고 『피네간의 경야』는 모두 주제적으로 그리고 정교하게 여기 서로 얽혀있다.

『피네간의 경야』는 조이스의 생시에 감수甘受되지 못했다. 그러나, 햄릿처럼, 조이스는, 자신의 『경야』가 진짜 잠자는 자가 되리라 믿으면서, 기다리기를 배웠다: “그들로부터 일어날지니 마침내 험 릿(Hum Lit)이.” 조이스는 자주 자기 자신에게 『경야』가 잠자도록 타일렀음에 틀림없다(“잠잘지라,” 555.01), 그리하여 드

디어, 회귀의 불사조처럼, 그것은 재의 무더기로부터 솟을지니, 감수되고, 새로운 비코의 환속의 새(鳥) 『햄릿』처럼 인정받으리라. 그 땀 그것은, 마침내, 험 릿 (Hum Lit)(햄릿 문학)이 되리니, 그것은 인문학과 문학의 애호가들에 의해, 읽히고, 즐기고, 감상되리라.

(전 고려대)